

인터넷 광고시장 가능성 매우 높다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보면 구독 실적에 따라 은행구좌로 일정액의 현금을 입금시켜주겠다는 업체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들이 특정업체의 광고를 보도록 유도함으로써 광고주의 광고효과를 극대화 하는 동시에 새로운 광고 매체로서의 사업을 펼치고 있는 인포뱅크가 바로 주인공이다.

인포뱅크가 어떤 회사인지 살펴봤다. <편집자>

골드뱅크 이달부터 선보여

인포뱅크(대표 김진호)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특정업체의 광고사이트를 검색해보면 그 대가로 돈을 주는 이색 인터넷 광고 서비스인 골드뱅크를 이달부터 선보이면서 인터넷 광고 대행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인터넷 광고는 국내에서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광고와 정보 그리고 유통을 통합하는 새로운 채널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이는 인터넷을 하나의 미디어로 인식하고 이를 광고 매체로 이용하려는 욕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라고 김 사장은 골드뱅크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

인포뱅크가 사업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골드뱅크를 비롯하여 지방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공 데이터베이스 사업, 기업이나 관공서,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다.

공공 데이터베이스 사업은 업무가 생산성에 초점을 맞춰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은 인력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아래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대민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 법규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홍보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대행 역할을 한다는 방식이다.

인터넷 사업은 기업이나 연구소 등 단체에서 내부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준다는 계획아래 해당 단체내에 관을 구성해 기업간의 상이한 전자메일, 전자결재 등의 시스템을 통합해 해당 기업이나 기관이 손쉽게 저렴하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

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

"골드뱅크 서비스는 현재 회원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업무를 보고 있는 사용자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올해안에 4만명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4천여명을 넘고 있는데, 주 가입자들은 2~30대 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라고 가입현황을 설명하는 김 사장은 2~30대 층이 주로 골드뱅크에 실린 광고를 열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해당 업체에서는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인포뱅크는 골드뱅크를 통해 회원들에게는 각종 광고 및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광고 검색시 보상, 상품 주문시 저렴한 가격에 해당 제품을 제공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광고주에게는 소비자 의견의 즉각적인 수렴과 노출 집단의 정확한 통계 및 분석자료, 효율적인 설문조사 등 광고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광고전략 구성에 도움을 준다는 영업방침을 세웠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주된 접속시간은 밤 9시부터 새벽 1시 사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차례적으로 실시한 자료에 의해 파악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TV시청 대신 인터넷을 이용하는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96년 10월 GVU's 6th WWW User Survey에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골드뱅크 사업은 전망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 사장은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을 펼치는 것에 대해 향후 전망을 들면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PC**